정보

Franz Schubert: Symphony No. 6 in C major, D. 589 “Little C major”
작곡가: Franz Schubert (1797–1828)
작품명: Symphony No. 6 in C major, D. 589 “Little C major”
장르: 관현악 교향곡
작곡 시기: 1817년 10월 –1818년 2월
사적 연주: 1818년 빈, Otto Hatwig가 이끈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공개 초연: 1828년 12월 14일, 빈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
초판 /전승: 1885년 Johannes Brahms 편집, Breitkopf & Härtel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6(Schubert)

Franz Schubert의 C장조 교향곡 제 6번, D. 589는 1817년 가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쓴 네 악장 교향곡이다 . 슈베르트가 붙인 원래 제목이 아니라, 훗날 같은 C장조의 제 9번을 “Great C major”라고 부르면서 생긴 “Little C major”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약 32분 동안 느린 서주가 붙은 Allegro, F장조의 노래하는 Andante, E장조 트리오에 독주 첼로가 등장하는 Scherzo, 밝고 활기찬 C장조 피날레가 이어진다. Haydn과 Mozart의 고전적 형식, Beethoven의 강한 제스처, 당시 빈을 휩쓴 Rossini의 오페라적 생기가 젊은
슈베르트의 긴 선율 안에서 만난다.

개요
제 6번은 슈베르트가 스물한 살에 완성한 작품이다. 제 5번의 실내악에 가까운 편성에서 벗어나 플루트 ·오보에 · 클라리넷 ·바순 각 두 대와 트럼펫, 팀파니를 갖춘 더 큰 오케스트라를 사용한다. 하지만 소리가 커진 만큼
음악이 거칠어지는 것은 아니다. 목관은 현악의 선율에 답하고, 세 번째 악장의 독주 첼로는 거대한 관현악
안에 한 사람의 목소리 같은 공간을 만든다.

작품은 1818년 빈의 사적 모임에서 먼저 연주되었고 , 공개 무대에는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올랐다. 1828년 12월 14일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 공연에서는 원래 더 큰 C장조 교향곡 D. 944가

예정되었으나 , 준비하기 어려워 제 6번이 선택되었다고 전해진다. 슈베르트는 그 연주를 듣지 못했다. 이 늦은 공개 초연은 곡의 가치를 말해 주기보다, 그의 초기 교향곡이 당대에 주로 친구와 가족의 연주로 전해졌다는 사정을 보여 준다.

작곡과 빈의 음악 환경
슈베르트는 1817년 10월 악보에 손을 대기 시작해 1818년 2월 완성했다. 그 무렵 빈에서는 Rossini의 오페라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슈베르트도 교향곡을 쓰는 동안 “이탈리아풍 ” 서곡을 만들었다. 제 6번의 목관 대화와 빠른 피날레가 무대 음악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다. 다만 그의 C장조 서곡 D. 591이 Rossini의 어법을 더 직접적으로 모방한 사례로 거론되며, 교향곡 전체를 차용 작품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제 6번은 Haydn과 Mozart에게서 물려받은 네 악장 형식을 토대로 한다. 첫 악장의 느린 서주는 고전적 품위를 만들고, Andante는 주제의 대조와 안정된 귀환을 통해 중심을 세운다. 이어지는 Scherzo는 미뉴에트보다
빠르고 날카로운 리듬을 선택하며, Finale는 넓은 C장조의 흐름과 오페라적인 활기를 결합한다. 젊은 작곡가가 모델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긴 시간과 더 큰 관현악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한 순간이다.

“Little C major”라는 이름
슈베르트는 악보 첫머리에 한때 “Grosse Sinfonie in C”라고 적었다가, 나중에 “Grosse”를 지웠다고 전해진다. 훗날 제 9번 D. 944가 거대한 규모와 긴 호흡으로 “Great C major”가 되면서, 제 6번에는 상대적인 “Little C major”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별칭은 작품이 작거나 미숙하다는 판정이 아니라, 같은 조성을 가진 두 교향곡을 구분하기 위한 편의적인 명칭이다.

실제로 제 6번의 관현악은 앞선 교향곡보다 크고, 피날레는 길게 이어진다. 작은 편성의 초기 슈베르트와
대규모 후기 교향곡 사이에서, 고전적 균형과 낭만적 시간감이 동시에 자라는 작품이다.

사적 연주와 공개 초연
1818년에는 Otto Hatwig가 주도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슈베르트 가족의 현악 사중주 모임에서 발전해 온 연주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 6번이 연주되었다 . 당시 모임이 열린 장소는 자료마다 다르게 전해지지만 , 빈의 사적 음악 모임에서 작품이 먼저 시험되었다는 사실은 공통으로 남아 있다.

공개 초연은 1828년 12월 14일 빈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의 연주회였다 . D. 944 “Great C major”가 너무 어려워 제 6번으로 바뀌었고, Johann Baptist Schmiedel이 지휘했다는 기록이 있다.
슈베르트의 사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였으며, 이때도 그의 작품은 생전의 출판과 대규모 공개 공연을 얻지 못했다.

1885년 Johannes Brahms가 편집한 Breitkopf & Härtel 판본으로 제 6번이 처음 출판되었다 . 19세기 낭만주의적 판본을 거쳐, Bärenreiter의 Neue Schubert-Ausgabe는 Arnold Feil과 Douglas Woodfull-

Harris의 편집으로 현대의 비평적 악보를 제공한다.

편성
제 6번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타악기: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 노트에는 트럼펫 세 대가 적혀 있지만, 공개 악보와 다수의 작품 자료는 두 대를 제시한다. 이 작품에서는 두 트럼펫과 팀파니가 C장조의 공적인 광택을 만들고, 목관은 Rossini를 떠올리게 하는 빠른 대화와 Schubert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을 맡는다.

네 악장

1. Adagio – Allegro
느린 서주는 현악과 목관이 서로 다른 색을 내놓으며 시작한다. 엄숙한 화음이 C장조의 공간을 열고, 각 악기가 짧은 선율을 이어받으면서 음악은 조용히 방향을 정한다. 그 뒤 Allegro가 시작되면 두 박의 큰 흐름과 자주 나타나는 스포르찬도가 관현악에 새로운 무게를 준다.

Allegro의 주제는 고전적인 춤의 탄력을 지니면서도 , 강한 시작과 더 부드러운 응답을 함께 품는다. 목관이 그 선율에 말을 걸고, 현악은 빠른 움직임으로 틀을 세운다. 전개부에서 조성이 멀리 이동해도 슈베르트는
돌아오는 길을 매끄럽게 마련한다. 목관이 짧은 카논을 이루는 대목에서는 선율이 클라리넷과 바순, 오보에와 플루트 사이를 오간다.

코다에서는 느린 서주의 재료가 더 빠른 템포로 되돌아온다 . 처음의 엄숙함과 Allegro의 춤이 하나의 흐름으로 결합하면서 , 악장은 단순한 청년기의 모방을 넘어선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이 구조가 훗날 D. 944의 첫 악장을 예고하는 듯하다고 설명하지만 , 제 6번은 그 자체로 완결된 교향적 세계를 갖는다.

2. Andante

F장조 Andante는 바이올린이 부점 리듬을 품은 노래를 내놓으며 시작한다. 첫 악장의 큰 제스처가 사라지고, 선율이 한 사람의 가곡처럼 가까이 들린다. 현악은 주제를 받치고 목관은 짧은 답을 하며, 음악은 밝은 표면 아래 작은 그림자를 남긴다.

중간부에는 더 무겁고 강조된 리듬이 들어온다. 부드러운 주제와 강한 삼연음형이 맞서지만, 긴장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처음의 선율이 다시 돌아올 때 삼연음의 기억이 그 안에 섞이고, 악장은 조용한 평온으로

끝난다. Haydn의 느린 악장과 비교되는 이유는 이런 절제된 대조와 분명한 귀환에 있다.

Andante의 목관은 오페라의 아리아처럼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다. 바이올린의 긴 선율과 목관의 짧은 대화가 한 공간 안에서 서로의 호흡을 조절한다. 이 악장을 통해 슈베르트가 가곡의 선율성을 관현악의 긴 문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들을 수 있다.

3. Scherzo: Presto – Trio: Più lento

제 3악장은 슈베르트가 교향곡에서 본격적인 Scherzo라는 이름을 사용한 첫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빠른 Presto는 짧은 동기와 강한 악센트로 출발하고, 목관은 중간부에서 3도 관계의 선율을 주고받는다 . 미뉴에트의 정돈된 우아함보다 Beethoven에 가까운 활력과 장난이 앞에 나온다.

트리오는 E장조의 Più lento로 느려지며, 독주 첼로가 전체 선율을 이끈다. 큰 오케스트라의 흐름이 한순간 실내악으로 좁혀지고, 첼로의 부드러운 음색이 C장조 Scherzo의 거친 표정을 가라앉힌다 . E장조와 C장조가 멀리 떨어진 조성 관계를 이루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점은 슈베르트의 화성 감각을 보여 준다.

Scherzo가 돌아오면 처음의 빠른 걸음이 다시 나타난다. 하지만 트리오를 거친 뒤에는 그 리듬이 더 넓은 공간을 갖는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이 트리오의 3도 관계가 D. 944에서 다시 확장된다고 설명하고, MusicWeb의 René Jacobs 평론은 트리오의 속도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그 대조가 흐려진다고 지적한다.

4. Allegro moderato
피날레는 C장조의 활기찬 주제로 시작한다. 현악의 빠른 음형 위에서 목관이 대화를 나누고, 점음표의 리듬이 악기 사이를 오간다. 주제가 한 번 나타나고 끝나는 대신 여러 구획으로 되돌아오므로 , 론도처럼 친근하면서도 소나타적 전개와 대위적 긴장을 함께 지닌다.

Schubert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트럼펫을 서로 다른 조합으로 묶어 같은 재료에 새 색을 입힌다. 밝은 C 장조가 계속 유지되는 듯하다가 중간에 단조와 먼 조성으로 이동하고, 곧 다시 활기찬 주제로 돌아온다. 이 이동은 극적인 파국보다,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오페라의 전환에 가깝다.

코다에서는 팡파르 같은 금관과 팀파니가 행진의 빛을 더한다. 그러나 앞선 악장들의 선율과 대화가 함께 남아 있어, 결말이 거대한 소리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Allegro moderato의 긴 호흡 속에서 슈베르트는 젊은 작곡가의 생기와 후기 교향곡으로 이어질 시간 감각을 동시에 보여 준다.

Haydn, Beethoven, Rossini 사이
제 6번의 표면은 Haydn과 Mozart의 고전 교향곡을 닮았다. 느린 서주, 춤곡에 가까운 빠른 악장,
미뉴에트에서 Scherzo로의 전환, 명료한 C장조 결말이 그 전통을 잇는다. 동시에 첫 악장의 장중한 화음과 Scherzo의 큰 설계는 Beethoven을 떠올리게 한다.

Rossini의 흔적은 목관의 빠른 주고받음과 피날레의 멈추지 않는 추진에서 느껴진다. 빈의 청중이 당시
오페라에 익숙했다는 사실이 배경이지만 , 제 6번의 선율은 Rossini의 무대 음악보다 더 길고 유연하다.
Schubert는 고전적인 균형과 이탈리아풍 생기를 자신의 가곡적 호흡으로 묶는다.

이 작품을 “후기 교향곡의 축소판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 6번에는 아직 젊은 슈베르트의 모방과
시험이 남아 있지만, 그 안에서 이미 독특한 관현악 대화와 긴 선율이 완성되어 있다. “Little C major”는
크기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더 큰 작품과의 관계를 통해 이 곡의 자리를 알려 주는 이름이다.

전승과 수용
슈베르트의 초기 교향곡은 생전에 정식 출판되지 않았고, 제 6번도 사후 1885년에야 널리 보급되었다 . 19
세기와 20세기 초의 연주 관습은 이 곡을 로시니풍의 가벼운 실험으로 보거나, D. 944로 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Scherzo의 활력, Andante의 변주적 호흡, 피날레의 관현악 대화가
독자적인 매력으로 다시 들린다.

Bärenreiter의 신 슈베르트 전집은 낭만주의적 편집이 남긴 두꺼운 음향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 원자료와
비평 보고서에 근거한 투명한 악보를 제공한다. 같은 악장이라도 시대악기와 현대악기, 반복의 선택에 따라 31
분대부터 35분대까지 시간이 달라지며, 이 차이는 작품의 구조를 바꾸기보다 호흡과 색채를 바꾼다.

주요 레코딩
Dennis Russell Davies / Sinfonieorchester Basel (SOB07): MusicWeb은 2014년
라이브 녹음에서 제 6번을 31분 28초로 기록한다. 가볍고 신선한 리듬, 선명한 목관, 정교한
Andante가 돋보이며, C장조의 밝음이 성급함으로 흐르지 않는다.
René Jacobs / B’Rock Orchestra (Pentatone PTC5186707): MusicWeb의 평론은
Scherzo의 E장조 트리오와 Beethoven 제 7번의 느린 트리오를 비교하고, 피날레를 행렬과
카니발이 겹치는 음악으로 듣는다. 템포의 선택이 악장 사이의 대조를 얼마나 바꾸는지 살필 수 있다

.

Edward Gardner /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 (Chandos CHSA
5245): BBC Music Magazine 계열 평론은 빠른 템포로 로시니적 생기를 살리면서도 , 슈베르트의
우아한 선율을 유지한다고 평했다. 목관의 색채와 피날레의 추진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Roger Norrington / Stuttgart Radio Symphony Orchestra: 1818년부터 1828년까지의
작품사를 소개하는 연주 영상과 함께 제 6번을 들을 수 있다. 시대악기적 발음과 현대 오케스트라의
넓은 음향을 비교하는 출발점이 된다.

주요 자료

IMSLP, Symphony No. 6, D. 589: 악장 ·마디 수 ·편성 ·1885년 초판과 공개 악보.

Boston Symphony Orchestra, Schubert Symphony No. 6: 작곡 ·사적 연주 ·공개 초연, 악장과 D.
944의 관계.

- Los Angeles Philharmonic, “Little C major”: □□ □□ □□ , Haydn·Beethoven·Rossini□□ □□ , □□□ □□ .
- Bärenreiter, Symphony No. 6 in C major: Neue Schubert-Ausgabe BA5646□ □□ □□ □□ .
- MusicWeb International, Davies/Sinfonieorchester Basel: 31□□ □□□ □□ □ .
- MusicWeb International, Jacobs/B’Rock: Scherzo Trio□ Finale□ □□ ·□□ □□ .
- BBC Music Magazine, Schubert Symphonies: Gardner·CBSO□ □□ □□□ □□ □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12:01 UTC by □□□
Updated 2026-10-04 10:12:01 UTC by □□□